
극우가 돈으로 키운 김문수 후보

김문수 후보는 극우가 돈으로 키운, 극우의 아이콘입니다.

지난 2006년 김 후보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의 신도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습니다. 전도사와 신도 14명은 법정최고한도액인 5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.

2016년과 2018년에는 극우로 유명한 변호사이자 유튜버인 서정욱 씨로부터 각 500만원씩 받은 것을 포함해 극우 인사가 김 후보에게 고액 후원한 내역만 약 9천만원에 달합니다.

김 후보가 밝혀야 할 의혹도 있습니다. 김 후보가 선배이자 스승으로 칭송한 임모 회장의 D기업은, 2005년 김 후보의 사상적 멘토로 불리는 안병직 교수의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주식 10만주를 기부합니다.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7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

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연구소입니다. 사도광산 강제징용에 대해 ‘정당한 모집을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금액을 부풀리기 위함’이라는 워킹페이퍼를 쓴 사실로 유명합니다.

김 후보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했고, 김 후보의 소방갑질 원인이기도 한 D기업이 왜 낙성대경제연구소에 고액 후원을 했는지에 대해 김 후보는 설명해야 합니다.

김 후보는 ‘뿌리 깊은 극우’ 그 자체입니다.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, 일본이 없으면 반도체, 자동차, 조선이 없었다, 반일은 죽음이다 라는 김 후보의 말은 결코 실언이 아닙니다.

일본에 굶신거리던 윤석열 정권이 김 후보로 연장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. 친일민국을 만들려는 김 후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.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.

2025년 5월 28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